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떠나가라!

믿고 싶지 않다. 과거의 이야기이길 바란다.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사장 선거를 앞두고 회사 안팎에서 들리는 소문은 흥흥하기 이를 데 없다. 심지어 재단이사과 후보자간 믿기 힘든 금전 거래 요구에 대한 뜬소문까지 등장했다. 특정 후보 '줄타기'는 오래 전 시작됐고 업무는 뒷전에 두고 자기 일처럼 선거 운동에 열심이라는 간부들 얘기는 이제 애교 수준이다.

진리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 공의의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신다. 67년간 CBS를 지키신 주님께서 일부 후보자와 일부 재단이사들의 샅꾼 목자와 같은 행태에 크게 분노하시며 말씀하실 것이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내게서 떠나가라” (마7:23)**

이번 사장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은 후배들에게 어떤 유산을 남길지 심각하게 고민하기 바란다. 능력 없는 파렴치한 자도 줄만 잘 서면 출세할 수 있다는 '줄타기의 유산'이나, 일부 교단 총회장 선거에서나 듣던 '금권선거의 부끄러운 유산'이 아니길 간절히 바란다. 금권선거, 마타도어 선거를 배경하는 노조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는 것이 부끄러울 지경이다.

엄연한 불법과 악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뜬소문이 선거 때마다 되살아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다. 강력한 제재 조치가 명문화돼 있지 않다보니, 공정 선거 논의가 단순한 선언에 머물러 있다. 오히려 정정당당히 임하는 후보들이 되레 불안해하는 상황이다. 이에 노조는 재단이사사회에 선거윤리강령에 피선거권과 선거권 박탈까지 포함하는 강력한 처벌 조항 신설을 공식 공문으로 요구했다.

노조는 CBS재단이사회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최고 수준의 도덕성을 유지하며 후보자들을 만나고 있을 것이라 믿고 있다. 하지만, 명문화된 처벌조항 등으로 제도화되지 않은 선거강령은 각종 의혹과 흥흥한 소문 속에서 힘을 잃을 수밖에 없다. CBS재단이사도 부정청탁금지법이 적용되는 언론사 임직원에 해당돼 청탁행위 등이 형사 처벌대상이기도 하다. 더욱이 하나님이 주인인 CBS의 사장선임을 위한 선거윤리강령은 사회법의 기준보다 훨씬 더 엄격한 기준을 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따라서, 재단이사사회는 공명선거에 대한 직원들의 열망을 반영해 관련 논의를 오는 3월 26일 재단이사사회에서 책임 있게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사측의 주요 현직 보직간부들 역시 더 엄정하고 더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해 선거에 임해야 할 것이다.

요컨대, 노조는 모든 CBS 구성원들과 함께 사장 후보는 물론, 이사회와 회사 주요 간부들의 활동 하나 하나를 모든 채널을 동원해 지켜볼 것이다. 하나님의 기관 CBS를 오염시키는 '금권선거'의 망령과 '줄타기' 혹은 '밀어주기' 행태들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소명과 책임 의식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하는 모든 관계자들의 뜻과 CBS의 명예를 지키는 일일 것이며, 공의의 하나님 뜻이 온전히 실현되는 첩경이 될 것이다.

2021. 3. 11.

전국언론노조 CBS지부